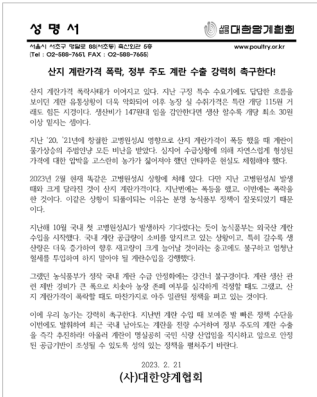


협회소식

NEWS



계란 정부주도 수출 추진 성명서 발표 난가 하락에 따른 정부 대책 촉구



본회는 최근 계란 공급량 증가로 계란 산지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산란계 농가들이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계란 정부주도 수출 촉구 성명서’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본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 주도의 계란 수입 정책을 비판하며 국내 남아도는 계란을 전량 수거해 정부 주도의 계란 수출을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본회는 “계란 공급량이 넘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계란 수입으로 재고량이 크게 늘었다”면서 “계란 공급 과잉으로 계란 생산비가 한 개당 147원인데 농장실 수취가격은 특란 한 개당 115원에 거래하기도 힘든 지경으로 한 개

당 최소 30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내에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계란 수입을 추진했다”면서 “지난번 계란 수입 때 보여준 발 빠른 정책 수단을 이번에도 발휘해 국내 남아도는 계란을 전량 수거해 정부 주도로 계란 수출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계란이 국민 식량 산업임을 직시해 앞으로 안정된 공급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한국국제축산박람회 실무자 회의 개최

홍보 및 부스유치에 전력



2023한국국제축산박람회(조직위원장 오세진)는 지난 6일 본회 사무실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추진 경과 및 참가신청 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박람회 부스목표를 700부로 두고 있는데 1월 말 기준 64개 업체 275개 부스로 39.2%를

보여주었다. 5개 사료업체가 출품을 결정한 가운데 기자재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부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3월에 개최되는 VIV Asia 태국 박람회에 6개 생산자단체 단체장 및 실무자로 구성된 홍보 참관단을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박람회 홍보 및 부스유치를 위한 기자간담회는 3월 중순(15일 예정)경에 개최기로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팀

축산물 PLS 시행에 따른 본회 협조방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농축산위생팀 송지숙 과장이 지난 3일 본회를 방문 오세진 회장 직무대행과 만나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축산물 PLS는 미허가 동물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써 2024년 1월 1일부터 소·돼지·닭고기·우유·계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동물약품은 현재와 같이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받게 된다. 송지숙 과장은 내년 시행되는 제도를 농가들에게 알려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지회·지부 소식

의성채란지부

사랑의 계란기탁



본회 의성군 채란지부(지부장 심경학)는 지난 16일 조류인플루엔자(AI), 사료값 급등 등 어려운 축산경영 여건에도 양계인들의 마음을 모아 계란 1,000판을 저소득, 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의성군에 기부했다. 심경학 지부장은 “산란계 농장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외된 이웃들이 우리 지역의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계란을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 나눔을 계기로 따뜻한 손길이 확산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란계 농장 경영부담 과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 값진 선물을 내주어 저소득, 소외계층의 이웃을 돌아볼 기회가 되었다”며 “기증해 준 계란이 우리 군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